

- **주요 뉴스:** ECB 총재, 내년에도 금리인상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
 - 유럽 주요국, 코로나19 재확산에 봉쇄 조치 재시행
 - 미국 하원,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\$2조 규모 ‘더 나은 재건법안’ 통과
 - 美 연준 부의장,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논의 가능성
- **국제금융시장:** 유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시장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
주가 하락[-0.1%], 달러화 강세[0.6%], 금리 하락[-4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유럽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으로 하락
 유로 Stoxx600 지수는 코로나19 재봉쇄 우려 등으로 하락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유로화 급락의 영향으로 상승
 유로화가치는 0.7% 하락, 엔화는 0.2% 상승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유럽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하락
 독일은 위험회피 심리 등으로 7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1.3원, +7.5원) 0.6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11/19일	11/18일	전일대비			11/19일	11/1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97.9	4,704.5	-0.1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5%	1.59%	-4bp
	유럽	486.08	487.70	-0.33%		독일	-0.34%	-0.28%	-7bp
	중국	3,560.4	3,520.7	1.13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29,746	29,599	0.50%		중국	49bp	51bp	-2bp
	한국	2,971.0	2,947.4	0.80%	위험 지표	EMBI+	-	377.77	-
환율	달러지수	96.07	95.52	0.55%		VIX	17.91	17.59	1.82%
	유로화	1.1290	1.1371	-0.71%		WTI유	76.10	79.01	-3.68%
	엔화	113.99	114.26	0.24%	원자재	구리	439.85	430.45	2.18%
	위안화	6.3871	6.3861	-0.02%		금	1,845.7	1,858.9	-0.71%
	원화	1,185.3	1,180.4	-0.4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ECB 라가르드 총재, 내년에도 금리인상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

-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더 높아질 것이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
-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초과수요보다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것인 만큼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, 오히려 조기 긴축정책은 가계소득에 대한 압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언급
- 아울러 ECB는 인플레이션이 2%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, 통화정책은 현재가 아닌 중기적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도 강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유럽 주요국, 코로나19 재확산에 봉쇄 조치 재시행

- 오스트리아는 22일부터 최장 20일간 생필품 구매나 운동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제한하는 등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
- 독일은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지사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활동을 제한하는 계획에 합의. 아울러 고령자 요양원과 병원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
- 그리스, 네덜란드, 러시아, 라트비아 등도 백신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등 부분적 봉쇄 조치를 도입

■ 미국 하원,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\$2조 규모 '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' 통과

- 하원은 교육과 의료,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복지성 예산인 동 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처리. 바이든 대통령은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중산층 재건을 통한 미국경제의 회복을 강조
- 하지만 국가부채 증가를 이유로 공화당의 반대가 강해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. 민주당은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할 방침

■ 美 연준 부의장,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 가속화 논의 가능

- 클라리다 부의장은 경제가 매우 강한 상황이며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위험이 있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

■ 일본 정부, 경기회복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 경제대책 발표

- 19일 임시 각의에서 55.7조엔(민간 투자분 포함시 78.9조엔)에 달하는 기시다 내각 첫 경제대책을 발표. 이는 재정지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
-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경제를 회복궤도에 올려 놓고 싶다고 이번 대책이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.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위해 31.9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

■ 중국, 제조업·중소기업·개인사업자 대상 추가 감세 검토

- 리커창 총리는 제도적인 감세를 계속하고, 기존의 세금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단계적 감세와 비용 절감 조치 등의 조합을 연구해 제조업과 중소기업,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

■ 미국 식품의약국(FDA), 모든 성인으로 부스터샷 대상을 확대

- FDA는 19일 미국의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모더나와 화이자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. 지난 9월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의 지적으로 노인 등으로 대상을 축소해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

■ 코메르츠뱅크,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ECB 금리인상 가능성은 소멸 중

- 유럽 주요국이 봉쇄조치에 들어갔거나 들어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차 확산함에 따라 내년엔 ECB가 금리인상 등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생각은 버릴 필요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19 현지시각 기준)

- 영국 10월 소매판매(yoy) : -1.3%, 전월(-1.3%), 예상치(-2.0%)
- 독일 10월 생산자물가(yoy) : 18.4%, 전월(14.2%), 예상치(16.2%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ob@kcif.or.kr